

# ‘닭살케플’로 열심히 살래요

## 천마재활원, 장애인 부부 두쌍 사회생활 첫 발

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원)내에서 ‘오빠’ ‘동생’으로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던 3급 정신지체 장애인 박병주(36) 전미숙(32) 부부와 이태근(31) 이경숙(28) 부부. 10월 12일 두 부부의 방을 찾았을 때 이들은 이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재활원에서 생활하다 사랑을 키워 정관 스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선살림을 차렸던 천마재활원을 떠나 사하구 다대동에 12평 영구임대 아파트를 얻어 독립을 하게 됐다. 각각 결혼 9년, 8년만이다. 부산지역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부부가 새 동지를 찾아 독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생의 대부분을 재활원에서 보낸 이들 부부에게 세상으로의 독립은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모험이고 도전이다.

독립을 결심하고서도 2년 동안이나 은행 거래법, 고지서 납부 요령, 급전출납부 작성, 시장보기, 요리 등 세상살이에 적응

하기 위한 갖가지 훈련과 연습으로 보내야 했을 정도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간단한 급전출납부 작성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부산불교교육대학 자원 봉사자들과 연계한 적응훈련 끝에 재활원의 보호에서 벗어나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 2년 동안 세상살이 적응 훈련 식당보조 등 하며 아파트 얻어 3년 안에 전셋집 얻는 것 목표

아파트 임대 보증금 213만원은 도자기 굵은 일, 식당보조, 시설 관리 등으로 받는 월급을 모아 장만했다. 입주일인 15일이 임박하자 이들 부부는 이사 갈 아파트를 재활원 선생님과 가족들과 함께 도매, 장편, 페인트



10월 15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삿짐을 챙기고 있는 박병주 전미숙 부부.

칠까지 직접 했다. 결코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들어서 채워나갈 풍성한 사랑과 꿈의 간직한 부부의 입기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닭살케플’로 소문난 박병주 전미숙 부부는 “막상 독립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모든 게 걱정되고 막막하기도 하다”며 “그래도 알뜰하게 살림해서 3년 안에 전셋집으로 이사 가는 게 목표”라고 야무진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미숙씨는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최고의 파티셰가 되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2세 계획도 조심스레 세우고 있다.

결혼 8년차인 이경숙씨는 “장애인 축구팀 선수로 활동하는 남편이 전국 장애인 풋살(futsal, 실내축구)대회에 출전 중이라

혼자 이사를 하게 돼 걱정이 더 많다”며 “재활원 식구들중에는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나도 울게 될 것 같다”고 떠나는 설렘함을 전했다.

이들 부부는 10월 한 달간 재활원을 오가며 적응 과정을 거친 후, 11월부터 트랙 스타에 취직해 어느 사람처럼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일요일엔 늦잠도 자고 산책도 하면서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 싶다는 이들의 단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대 아파트에서 가까운 관음사 신도로 등 록, 생애 처음으로 법회도 보고 신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불자로서의 깊이도 더해가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부산/글·사진=천미희 기자

## 용호 햇빛연극단 창단 첫 공연

10월 9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용호동 UN 공원 특설무대에는 제9회 오류도축제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연극이 한창이다. 애령의 계교에 빠져 낭패를 당하고 있는 배비장이 진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장면이다.

이날 해학과 풍자로 관객을 쥐락펴락하며 무대를 펼치던 극단은 용호복지관(관장 혜충) 햇빛연극단(단장 김동민), 용호복지관 햇빛연극단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연극 공연으로 환하게 밝혀주겠다는 목표로 지난 7월 9일 창단했다.

인근 주민들이 배우로 참여해 만든 아마추어 극단인 햇빛연극단의 창단을 기념한 첫 공연임에도 이날 공연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무대였다.

천미희 기자

## 대구 중부췌, 시민 음악회 개최

대구 중부경찰서(서장 조두원) 불자들의 모임인 범우회(회장 유문종)와 기독교신자들의 모임인 신우회(회장 김상환)가 ‘경찰 60주년 기념 축하 시인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한다.

10월 20일 대구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서부교회 나다니엘 어린이 중창단의 공연으로 시작해 남부교회 아가벨라 중창단과 서부교회 새노래 여성 중창단의 기독교음악을 선보인다. 그리고 금강합창단과 황룡사 주지 도일 스님, 김태란 불자가 찬불가를 부를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 한미음선원 울산지원 합창제

한미음선원 울산지원(지회장 혜안은)은 10월 30일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아암환자돕기 한미음합창제 마음의 불꽃’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 수익금 전액을 11월 1일 울산시에 전달하게 되는 이번 음악회에는 울산 지원의 거사합창단, 어린이, 청년회 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을 비롯 중부경찰지원, 진주지원 어머니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등 120여 명이 참여한다.

지원장 혜안 스님은 “모든 이들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자유인의 길을 걸을 수 있길 기원하며 합창제를 마련했다”고 합창제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052)295-2335 천미희 기자

## 금정실비요양원 기공식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이사장 흥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 청룡동 39-5번지 금정실비노인요양원 신축공사장에서 금정실비노인요양원 기공식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공사개요 보고와 법인 대표 이사 흥교 스님의 기념사,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의 격려사에 이어 시삽을 한 뒤 2부에서 안전지원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정실비노인요양시설은 200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387평에 건평 187평으로 건립된다. 천미희 기자

## 부산 길상사 9일 개원법회

부산 강서구 길상사(주지 자민)는 10월 9일 오전 불사 회향 법회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해림사 주지 동립 스님, 보타원 회종 보광 스님,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정각 스님, 천은사 주지 금중 스님 등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백옥불 점안, 경과보고, 주지 스님 인사말, 법어의 순으로 진행됐다.

길상사는 앞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말마다 가족단위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다도 교실, 가족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도법 지도 등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수행을 동시에 챙겨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 표충사 사명제전 성료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는 8일부터 10일까지 제524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기념하는 사명제전을 봉행했다.

8일 입재식과 함께 사명대사 일대기 유물 전시, 사찰음식시연, 전통다도 시연 등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을 펼친 표충사는 특히 9일 저녁 표충 산사음악제로 사명제전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표충사는 마지막 날인 10일 표충사 경내 사당인 ‘표충사’에서 제524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하며 3일동안의 사명제전을 회향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통도사 극락암 주지 원산 스님, 이상조 밀양시장, 불교방송 이성연 사장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향사는 유교식 향사와 불교적 연산재를 1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향사는 예년에 비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지역의 유림과 불자들이 다함께 참여했다.

청운 스님은 “앞으로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가르침을 현대에 재조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대성사 2박3일간 연산재 재현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정산)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대구도 영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봉행했다(사진).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의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인 연산재를 2박3일간 밤낮으로 재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10월 1일 입재식을 봉행한 후 매일 사경과 법화경 28품을 독송하는 등 모든 불교수행법을 망라하는 웅장정진의 시간을 가진 후, 9일부터 3일 동안 연산대재와 생전예수재를 봉행해 의미를 더했다. 배지선 기자

## 어르신들 건강, 안정된 생활 해결

### 부산 노인요양시설 상락원 배산실버빌 개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촉탁의를 위촉해놓고 있다.

상락정 배산실버빌 입소 대상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월 평균 가구원 소득이 1인당 90만원 이하여야 한다. (051)753-9907 천미희 기자

**통도사 개산대제 봉행**

**부도헌다레, 가사친견 행사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11일, 개산 1360주년을 맞아 개산대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초우 스님을 비롯 허남 식 부산시장, 오근섭 양산시장 등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통도사 개산대제는 10월, 11월 양일간 영축 사생대회, 제7회 부도헌다레, 부처님 가사, 자장율사 가사 친견, 재물잔치, 개산대제 기념 합창제 등의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회향했다. 천미희 기자

## 목판인쇄, 이운행렬 등 체험

### 해인사 팔만대장경 축제

2005팔만대장경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해인사와 합천을 횡강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해인사(주지 현응)와 2005팔만대장경축제위원회 주최로 5돌을 맞는 팔만대장경 축제의 올 주제는 ‘목판인쇄문화와 함께 하는 역사여행’이다.

목판인쇄의 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감상 체험할 수 있는 목판인쇄 문화축제답게 4일 동안 원목가공, 목판 성형, 목판·목각 전사, 인경 시연 및 체험, 전통한지 제조 시연 및 체험 등 목판인쇄에 관련한 각종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7일과 8일에는 고령개포와 해인사 일원에서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다.

조선 태조 때(1398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 이전사, 고령 개경포를 거쳐 해인사로 팔만대장경을 이운하는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는 단연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해인사주지 현응 스님과 사부대중 천여명이 이운행렬에 참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이운행렬 참가자를 공모해 일반인도 동참해 화제가 됐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지혜 가꾸는 도량되길”

### 부산 해인정사, 불사회향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는 10월 7일 10년여의 도량 불사를 회향하는 낙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총 5천여 평의 부지 위에 대적광전, 지장전, 관음전을 비롯한 6개의 당우와 문화회관, 불교조각 전시장 등을 갖춘 대적불사를 회향하는 자리였다. 이날 법회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비롯 1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해인정사는 앞으로 해인불교경전대학을 중심으로 부처님 경전을 토대로 한 재가 교육을 담당하는 도량으로 자리 잡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금강경>, <다도경>도 진행된다. (051)291-1176 천미희 기자

# 삼각산 도선사 창건 1134주년 개산대제 제4회 청담문화제

풍요로운 가을의 향연 삼각산 도선사에서 만끽하시길...

귀의삼보하옵고, 불법과 천문, 지리의 심오한 이치를 통달한 도선 국사가 명산 승자를 두루 답사하다가 삼각산에 이르러 산세가 절묘하고 풍경이 청수한 이곳에서 천년 후 말세 불법이 재흥하리라 예견하고 도선사를 건립하셨습니다. 이후 삼각산 도선사는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면 많은 큰스님들이 도량을 외호하시어 수도 서울의 대표적 참회 및 관음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선사는 개산조 도선국사의 개산의 교배한 뜻을 잇고자 개산대제 및 청담문화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지 선묵 해자 합장

**일시 : 11월 4일(음력 10월3일) 금요일**

### 주요 행사 일정

- 1부 : 개산대제(10시)
  - 괘불 헌배 및 헌공
  - 불공의식
  - 법요식
- 2부 : 도선국사의 생애와 사상 특강(12시)
  - 강사 : 이광준 일본 용국대학교 교수
- 3부 : 청담문화제(15시)
  - 사 회 : 이익선
  - 출연진 : 가수 장미화, 탤런트 강부자, 가수 머무와다래, 가수 박정식, 개그맨 신재수, 박정희 교수, 복침사자놀이, 학춤

<개산조 도선국사 진영>

주최 :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관 : 청담장학문화재단    전화 : (02)993-3161~3